

KWDI

해외통신

2020년 4월 2차 (2020.4.16 ~ 4.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독일, 코로나19 상황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3월 23일부터 이동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다. 가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만남이 금지되고 있으며, 출퇴근이나 응급치료, 생필품 구매, 운동 등의 필수적인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식당 등 요식업과 미용실 등의 여러 업소 영업이 중지되었고, 공공장소에서는 타인과 최소 1.5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이러한 이동제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 및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더 높으나, 피해자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긴급콜센터에 평소보다 더 적은 수의 전화를 통한 지원 요청이 있었던 반면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 긴급요청 건수는 늘어났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여성보호 시설을 찾는 여성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일 자를란트 대학의 미하엘 심리치료학과장은 “중국 우한의 경우, 격리 및 폐쇄 조치가 시행된 이후 여성 보호시설에 머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가 3배 이상 높아졌으며, 중국 경찰은 평소보다 두 배 많은 긴급 지원 전화를 받았다”며 “독일 역시 격리조치로 인해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외부세계로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알릴 기회가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독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 중이다. 먼저 독일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해 ‘긴급전화(Das Hilfetelefon, 08000 116 016)’, 웹사이트(www.hilfetelefon.de)를 통해 바로 응답이 가능한 채팅, 이메일 상담을 지속 운영한다고 전했다. 낙태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상담 서비스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 독일 정부는 여성 보호소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호텔 등을 활용한 숙소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공간인 ‘여성의 집(Frauenhäuser)’ 총 353곳과 약 40개의 임시 주거시설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존 시설만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berliner-zeitung(2020.04.02.), “Berliner Senat mietet Hotels für Opfer häuslicher Gewalt”, <https://www.berliner-zeitung.de/mensch-metropole/berliner-senat-mietet-hotels-fuer-opfer-haeuslicher-gewalt-li.80329> (접속일 : 2020.04.11.)
- spiegel(2020.03.27.), “Hamburg bucht erste Pension für Opfer häuslicher Gewalt”, https://www.spiegel.de/panorama/coronavirus-haeusliche-gewalt-hamburg-bucht-erste-pension-fuer-betroffene-frauen-a-00000000-0002-0001-0000-000170213661?fbclid=IwAR05jhuOEB6KQt_hYQIn400XZXRxKnNswKjdLfwSv7bjtKT-y2oXOxXdqns (접속일 : 2020.4.11.)
- tagesschau(2020.03.28.), “Man muss mit dem Schlimmsten rechnen”, <https://www.tagesschau.de/ausland/corona-europarat-haeusliche-gewalt-pejcinovic-buric-101.html> (접속일 : 2020.4.11.)

- 먼저 베를린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해 호텔 2개를 임대하기로 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운영이 중지된 상태라 임대가 가능하다. 베를린 의회는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고립될 수 있는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보호시설의 수를 늘리고 있다. 임대하기로 결정한 호텔 건물 한 곳은 피해 가족이 머물 예정이며, 다른 한 호텔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되어야 하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 베를린에는 6개의 '여성의 집'을 비롯해 약 90여 개의 보호시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설이 늘 붐비고 피해자가 계속 시설을 옮겨야 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베를린 의회는 기존 시설과 새로 확보한 호텔 두 곳 외에도 앞으로 계속 여성보호시설 확보를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베를린 경찰청은 2020년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정폭력 사건 접수가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그리고 피해여성과 아동을 위한 숙박 마련과 함께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이 수행될 예정이다. 베를린 의회는 시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복지청 직원과 학교 및 사회복지사가 4월 부활절 휴가 기간과 격리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동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들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무료로 법의학 의사를 통해 폭력 피해나 부상 등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스키아 예졸트 샤리테병원 폭력피해 보호를 위한 외래진료소 부소장은 "기관 폐쇄 조치로 인해 학교, 유치원, 보육교사 등이 시민 주변에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부상이나 상처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격리 상황에 증가할 수 있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 북도시인 함부르크의 경우에도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가 숙박시설이 마련된 상태다. 함부르크 의회는 코로나 위기에 가정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발표자료에 따라, 함부르크의 모든 동네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숙소를 마련 중이다. 의회는 2020년 3월, 숙소 한 곳을 앞서 예약했다.
- 함부르크에는 5곳의 여성보호시설이 있지만, 의회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족이 격리되어 지낼 수 있거나 더 많은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함부르크 의원들은 "이미 확보된 숙소 외에도 더 많은 공간을 예약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함부르크에 접수된 가정폭력 피해 건수는 아직 증가하지 않은 상태다.



영국,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 신고 급증으로 비밀코드 활용한 신고체계 도입 검토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 뒤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신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의심 사망사고도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단체인 Refuge는 2020년 4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뒤 피해신고 건수가 봉쇄령 이전 주와 비교하면 평균 270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Refuge는 영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전국 가정폭력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이 단체에 따르면,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피해신고 건수는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리기 전인 2주 전보다 평균 25% 증가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접속 횟수도 같은 기간 1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 산드라 홀레이 Refuge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고, 가해자와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하는 요즘 같은 봉쇄 기간에는 신고할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 이와 함께 가정폭력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전국 봉쇄령 조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Counting Dead Women’의 설립자 카렌 잉가라 스미스는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아동을 포함해 여성 총 16명이 가정폭력으로 숨졌으며, 2020년 4월 15일 코로나19가 가정 및 아동 폭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영국 내무성 특별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 Counting Dead Women은 남성에게 살해당한 영국 여성 관련 통계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로 스미스가 주도했다. 스미스는 인터넷 검색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계자들을 접촉한 뒤 자료를 모았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영국 전역에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피해 사망자 수치가 같은 기간 평균 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평균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숨진 여성 7명은 현재 파트너나 헤어진 연인에게, 3명은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Refuge (2020.04.06.), “25% increase in calls to national domestic abuse helpline since lockdown measures began”, <https://www.refuge.org.uk/25-increase-in-calls-to-national-domestic-abuse-helpline-since-lockdown-measures-began/> (접속일 : 2020.4.23.)
- The Guardian (2020.04.15.), “Domestic abuse killings more than double amid covid-19 lockdow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apr/15/domestic-abuse-killings-more-than-double-amid-covid-19-lockdown?CMP=fb_gu&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Echobox=1586978464 (접속일 : 2020.04.23.)
- BBC (2020.4.15.), “Coronavirus: Shop workers should be trained to help abuse victims”,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2296284> (접속일 : 2020.4.23.)
- UK Parliament (2020.04.14.), “Impact of Covid-19 (Coronavirus) on domestic and child abuse examined”,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home-affairs-committee/news-parliament-2017/coronavirus-domestic-and-child-abuse-evidence-19-21/> (접속일 : 2020.4.23.)

스미스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남성을 폭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었던 남성이 폭력을 더 자주 휘두르는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전국 봉쇄령 이후 피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도 슈퍼마켓 직원에게 비밀 코드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피해자들이 슈퍼마켓 식료품 쇼핑을 이유로 외출했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임 베라 바일드 영국 웨일스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 국장은 “만약 슈퍼마켓 직원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 코드를 사용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나중에 슈퍼마켓 직원이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캐나다 CANADA



캐나다,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의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실직 및 의료접근 제한의 피해 커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의 한 조사기관(Abacus Data)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20년 3월 20일부터 3월 22일 이틀간 캐나다 전역의 1,378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여성 응답자의 49%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very worried)’, 26%가 ‘어느 정도 걱정스럽다(somewhat worried)’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는 30%가 ‘매우 걱정스럽다’, 33%가 ‘어느 정도 걱정스럽다’라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조사기관인 Leger에서 1,508명의 캐나다 전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75%가 가족들의 감염 여부에 대해 두렵다고 응답했지만, 남성의 경우 64%만이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bacus Data 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거의 걱정되지 않거나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31%에 달했으나, 성별 응답률의 차이가 컸다. 남성 응답자는 37%, 여성 응답자는 25%가 거의 혹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는 위험인식에 있어서 확연한 젠더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여성이 위험 상황을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학계의 연구결과를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또한 남성은 단지 걱정을 덜 할 뿐만 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공중보건 지침도 여성에 비해 덜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캐나다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지침을 ‘누가 따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세대 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조사는 30세 미만과 44세 이상의 남성들을 지목하였다. 30세에서 44세 사이 남성 40%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세에서 29세 구간의 남성들의 경우 20%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29세 미만의 젊은 남성들이 코로나 사태를 가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 지침 또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30세에서 44세 사이의 연령집단은 남녀 모두 현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조사기관은 이 연령대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분포해서일 것으로 해석했다.

참고자료

- Canadian Women's Foundation(2020.03.25.), "Women's Worry Work in the COVID-19 Pandemic", <https://canadianwomen.org/blog/womens-worry-work-in-the-covid-19-pandemic/> (접속일 : 2020.04.18.)
- National Post(2020.03.23.), "COVID-19: Canadian women far more worried about pandemic than men are, poll shows", https://nationalpost.com/news/politics/canadian-women-are-far-more-worried-about-covid-19-than-men-poll?video_autoplay=true (접속일 : 2020.04.18.)
- HuffPost(2020.04.10.), "Feds Must Do More To Address Women's Needs During Pandemic: Advocates",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coronavirus-women-federal-support_ca_5e908094c5b6cac1e812872dca_5e908094c5b6cac1e812872d (접속일 : 2020.04.18.)
- Leger(2020.03.23.), "COVID-19 TRACKING SURVEY RESULTS", <https://leger360.com/wp-content/uploads/2020/03/COVID-19-Tracking-Study-March-24-2020-final.pdf> (접속일 : 2020.04.18.)

캐나다 여성재단은 이러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인용하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이 행하는“걱정 일(worry work)”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가정 내의 대소사를 걱정하는 일 또한 흔히 여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겨져 왔는데, 매사에 과도하게 우려하며 호들갑을 떠는 여성상은 침착한 남편과 대조되며 종종 미디어에서 코믹하게 묘사되어 왔지만, 이는 여성의 이유 있는 염려와 불안을 감추어 왔으며 여성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물질적·감정적 노동(risk management work)을 평가절하해 온 것이라는 것이다. 여성재단은 이성애 가정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이 걱정하는 일을 전담한다는 연구결과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여성들이 현 상황에 대해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큰 걱정을 하는 것은 확실히 그럴 만한 물질적 이유가 있다. 캐나다 사회에서 여성 일자리는 저임금, 파트타임, 서비스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의 돌봄 의무 때문에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최근 캐나다에서 코로나 사태를 젠더 측면에서 진단하는 언론 보도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은 성별을 가리지 않지만 전국적인 섣다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가혹한 피해를 받을 집단은 여성이라는 분석들이다. 예컨대 최근 캐나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 25세에서 54세 사이 연령집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실직률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 사태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병원이 충분하지 않은 노바스코시아와 같은 주에서는 여성들이 임신 중절 시술과 같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또한 있었다.

캐나다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장관은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사태가 여성에게 왜 유독 가혹한 것인가에 대해 지적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대책이 여성들의 독특한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 못하다며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2020년 4월 20일 현재 추가 재정 지원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독일 GERMANY



독일, 디지털 성폭력 예방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주력

체 헤 원 독일통신원

독일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새로운 성폭력 위험을 가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비판적으로 다루거나 금지 조치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아동,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 UBSKM(2020),
“WISSEN-HILFT-SCHUTZEN,DE”,
<https://www.wissen-hilft-schützen.de>
(접속일 : 2020.4.20.)

독일 연방정부에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독립 자문관(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과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위원회’이다. 독립자문관은 성폭력과 성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설치됐으며, ‘독립위원회’는 2016년부터 가정, 학교, 직장, 기관 등 독일 전역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범위,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정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자문관은 디지털 성폭력 유형 중 ‘사이버 그루밍(Cybergrooming)’과 ‘섹스팅(sexting,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채팅앱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이용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그루밍’은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사진,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튀링겐(Thüringen)주 교육 노조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2명의 학생이 섹스팅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여학생이 75%였으며, 대다수가 11세에서 14세 사이 학생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 노조는 교사가 경찰, 상담센터, 청소년복지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요하네스 빌헬름 로릭 독립자문관은 “그루밍의 경우, 가해자가 대화창에서 아동성폭력을 위해 접근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가해자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경찰에 사이버그루밍을 심각한 범죄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독립자문관 부서는 부모, 교사와 같은 교육 관련 지도자, 검색엔진이나 온라인게임 업체 등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보호된 사용 영역 개설 ▲어린이 및 청소년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조언 및 지원 서비스를 보기 쉽게 배치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전달 ▲법 집행 당국과 서비스 기관에 더 나은 재정 및 인력 배치 확보 등이다.

독립자문관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해 부모,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s://www.wissen-hilft-schützen.de>)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인터넷 안전 이용,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지, 디지털 윤리, 학교 성폭력, 미디어 사용법, 채팅 위험성, 포르노그래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었거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48개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개되어있는 사업 중 하나인 <샤우 힌(SCHAU HIN!)>은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홈페이지(<http://www.schau-hin.info/>)를 보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스마트폰’ ‘게임’ 등 분야별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면 바람직한지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 부모와 양육자, 교사가 참고하면 좋은 정보는 섹션별로 나눠 정리해놓았다.

- UBSKM(2020.03.23),
“5 Jahre Betroffenenrat beim 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UBSKM)”,
<https://beauftragter-missbrauch.de/presse-service/pressemitteilungen/detail/5-jahre-betroffenenrat>
(접속일 : 2020.4.20.)

- UBSKM(2020),
“Sexuelle Gewalt mittels digitaler Medien”,
<https://beauftragter-missbrauch.de/praevention/sexuelle-gewalt-mittels-digitaler-medien>
(접속일 : 2020.04.20.)

- GEW (2018.06.08.),
“Digitale sexualisierte Gewalt: Lehrkräfte wünschen sich Fortbildungen”,
<https://www.gew-thueringen.de/aktuelles/detailseite/neuigkeiten/digitale-sexualisierte-gewalt-lehrkraefte-wuenschen-sich-fortbildungen/>
(접속일 : 2020.04.20.)

구체적으로 보면 ‘JusProg(www.jugendschutzprogramm.de/)’에서는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I-키즈(<https://www.i-kiz.de/>)와 ‘Jugendschutz(<http://www.jugendschutz.net/>)’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알림이 뜨거나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